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

임실군, 지난해 베트남 이어 캄보디아·라오스와 업무협약 체결

임실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및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를 각각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쳤다. 업무협약에는 이진관 부군수를 단장으로 장종민 군의회 의장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이들 두 나라의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 농번기 일손 공급에 대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이번 캄보디아, 라오스와의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로 지난해 베트남에 이어 협약 국가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우수 농업 인력을 유치하여 안정적으로 농번기 일손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대표단은 협약 체결 전 간담회를 통해 각 나라에서 계절근로자들의 한국 적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약 체결 후에는 근로자들의 한국에서 원활한 적응을 위한 계절근로자 교육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나라의 근로자 송출 준비상태를 확인했다. 군에서는 올해 267명의 계절근로자를



임실군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및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를 각각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입해 농번기 일손을 보낼 예정이다. 군은 그동안 베트남 푸엔광시, 푸엔광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을 맺고 농번기 농업 일손을 공급해 왔다. 지난해 베트남 푸엔광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손을 맞잡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는 물론 임실 관광 홍보에도 기여한 바 있다. 당시 협약을 통해 군은 안정적인 우수농 농촌 인력을 확보하고 안전한 거주와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에는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68억을 투자하여 90명 수용가능한 30실 규모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착공,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농가경영의 안정 도모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한 지역 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유치 국가를 다각화하여 우수한 농업 인력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군에서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고용주 교육을 철저히 하여 근로자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적극 홍보

순창군은 지난 7일 2025년 (사)한국대표여행사 연합 총회에 참석해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홍보 등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했다. 이번 방문은 순창군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유서 깊은 장류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이루어졌다.

이날 순창군 신인수 문화관광과장과 선운숙 발효관광재단 대표를 주축으로 한 8인의 방문단은 다각도의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주요 여행사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순창군의 관광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순창군 관광상품 개발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순창군의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중 버스비 지원사업은 여행사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실제 방문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순창의 숨겨진 보물 같은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전국의 여행사와 초·중·고 현장체험단 등에게 순창군의 관광 자원과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 법령 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설치 대상은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었으며, 순창소방서는 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집중 홍보에 나섰다.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제작, 수입, 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된 차량에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차량과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경유로 인증된 제품만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자동차 경유 표시가 없으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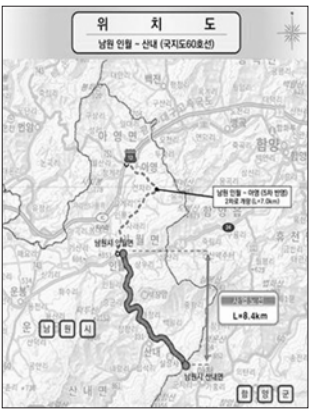


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도로 2개 노선, 예타대상 선정

국토부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남원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남원시 도로 2개 노선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남원시 인월면과 신내면을 잇는 국지도60호선 2차로 개량사업(L=8.4km, 555억원)과 순창군 적성면에서 남원시 주생면을 연결하는 국도24호선 2차로 개량사업(L=9.2km, 532억원)이다. 이 중 인월~신내 국지도60호선은 지리산권으로 가는 진출입 노선이자 경상남도와의 연결도로로 계절별 차량 정체 및 교통 혼잡이 빈번한 도로이다. 시설개량을 통해 인근 주민은 물론 동부 산악권 방문객에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지리산권 관광을 누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담양~순창~남원이 연결되는 순창 적성~남원 주생 국도 24호선은 광역 관광 루트 구축으로 관광 활성화 및 전남과 전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추진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최경식 남원시장은 중앙부처, 국회 등 수차례 방문하여 지역 현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 힘을 실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정책성 평가용역'을 추진하여 예비타당성 통과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며, 6차 계획에 우리시 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하고, 중앙부처, 국회 등에 건의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투자 우선순위에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상반기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성료

바래봉 눈꽃 등반·얼음썰매·눈 조형전 등 겨울 아름다움 만끽

남원시 운봉읍 운봉에향회(회장 신동열)가 주관한 제11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가 남원 허브밸리 및 바래봉 일원에서 지난 12월 28일 개장하여 2월 9일까지 44일간의 행사를 마쳤다. 1월 4일 개장 후 바래봉 등산객을 포함해 총 5만여명의 내방객이 방문해, 설 연휴로 이어진 1월 26일에는 약 2,100명인 최대 내방객이 방문해 호남 유일의 겨울 축제로 거듭났다. 이번 눈꽃 축제는 애환회와 지역주민,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하나 되어 번듯스러운 기후변화에 대처해 인공 눈 만들기, 행사장 주변 도로변 제설 작업, 야간 눈썰매장 보수 등 지역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된 의미 있는 행사였다. 특히 눈썰매, 얼음썰매, 눈놀이터, 바래봉 눈꽃 등반, 눈 조형전 등 겨울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어 겨울철 여행과 나들이를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군, 육천인재숙 제21기 수료식 개최

순창군은 지난 7일 (재)순창군육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 주관으로 육천인재숙 제21기 입학생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료하는 36명의 학생 중 22명이 지역 내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했으며, 주요 진학 대학과 학과로는 △외대·치대·수의예과 3명 △수도권 주요 대학 5명(고려대, 이화여대, 아주대, 경희대, 숭실대) △지방 국립대 13명(전북대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해군사관학교, DG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화여대 사이버보안학과, 아주대 국방디지털학과, 한국전력 계약학과인 전남대 전기공학과 등 취업과 연계된 특성과 대학으로의 진학이 두드러졌다. 나머지 학생들은 2월 초 정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수료식에는 수료생과 재학생, 학부모, 장학회 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정복지국장의 격려 인사와 함께 수료증과 수료 앨범이 수여됐으며, 학생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지속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구강 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사업'을 2025년에도 지속 추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불소도포 △틀니 관리 요령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등이다. 사업은 남원시 관내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적장애인협회, 평화의집, 평화의집 등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문 치과공중보건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참여해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시설별 방문 일정으로는 평화의집은 매월 1회, 평화의집은 2개월에 1회 방문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적장애인협회는 2개월에 1회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